

늘푸른물결

통권 263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8 2021



“신서천화력발전 가동 즉각 중단하라!”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지난 7월 1일 오전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 석탄을 넘어서(전국 탈석탄 공동행동)와 함께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공동의장님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자연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 송전철탑 건설
현장서 주민 대규모 연행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송산-석문면 산폐장 시설견학



충남시민단체, 신서천화력
가동중단 촉구 기자회견

- ▶ 발행일 2021. 8.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angjin.kfem.or.kr

3 이달의 시

|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 / 황규관

4 지역환경초점1

| 당진 송전철탑 건설 현장서 주민 대규모 연행

6 지역환경초점2

| 당진시,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위...5년 연속 1위 불명예 탈출

8 지역환경초점3

|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4000톤 증가했다

10 지역환경단신1

|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송산-석문면 산폐장 시설견학

11 지역환경단신2

| 충남시민단체, 신서천화력 가동중단 촉구 기자회견

12 전국환경초점1

| 통계 밖 숨은 태양광 찾았다...정부 "7월 피크시간 11% 기여"

14 전국환경초점2

| 제주2공항 환경평가서 반려...국토부 "사유 검토할 것"

15 전국환경초점3

|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16 석탄씨를 구해줘

| 12화 석탄 쓰다 걸리면 기후변화 당하는거 안 배웠나

18 세상 다르게 보기

|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19 7월 살림살이

20 7월 활동소식

22 8월 주요사업 계획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광고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

황규관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
 웃음이 너무 많다 노래는
 없고 이따리 한 장 내밀지 못하는
 언어가 객차 안에 가득하다

이번 차는 등을 돌린 자
 모험은 건조한 형식이 아닌데
 내 몸이 당신의 맥박을 차갑게
 하는

이번 차는 내 것이 아니다
 행선지가 너무 명확하다

진로이법이며
 폐허의 입을 틀어막는 환희이며

이번 차는 모른 척 보내고
 우두커니 혼자 가 되자
 혼자 가 되어
 멀린서 내리는 빛소리를 듣자

다음 차도 보내고
 다음다음 차도 보내고
 저물녘에 우는 늪은 새울음도 보내고
 슬픔에 사로잡힌 영혼도 보내고.....



황규관 시인

시집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 『패배는 나의 힘』, 『삼례 배차장』, 『철산동 우체국』 등이 있음

당진 송전철탑 건설 현장에서 주민 대규모 연행

신평 33번 송전철탑 건설 현장에서 주민들 반대 집회하는데 버 짓밟고 공사
업무방해로 5명, 공무집행방해로 1명 연행 ...
연행 과정서 항의하는 주민 논둑 바닥에 엎어뜨리기도

한전의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신평 구간 철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규모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2일 한전이 신평 마지막 구간 공사를 강행하자 우강 송전선로 대책위(이하 우강 대책위)는 예정대로 오전 9시부터 집회를 개최했다. (관련 기사: 당진 신평 송전선로 마지막 철탑 건설 돌입...강력 반발, 1366호) 충남도의회 이계양·이선영·도의원, 당진시의회 최창용 시의장 등도 참석한 집회에서 주민들은 한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민들은 집회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버가 자라고 있는 논으로 투입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한전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논에서 20년 간 논농사를 지어왔다는 A씨는 “아침부터 자식처럼 키워 온 벼를 짓밟고 공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다.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공탁을 걸었으니 맘대로 하겠다’는 한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잠시 후 공사를 진행하는 포클레인을 막아섰다. 이덕기 우강 대책위 위원장은 “농민들이 공사 반대 집회를 하는데도 약 올리듯 벼를 짓밟고 공사를 하는 한전을 보면서 기가 찼다. 이는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알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부터 현장을 막아섰던 주민들이 물리설 기미가 없자, 공사 진행을 위해 경찰이 직접 나섰다. 경찰의 주민 연행은 약 16시 20

분 경 작전이 시작됐으면 주민들이 경찰차량에 실리기까지 약 8분에서 10분 가량이 소요됐다. 여성 주민 2명은 여성 경찰과 남성경찰이 함께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주민의 옷이 말려 올라가고,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 경찰은 “어머니, 일어나서 걸으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라며 수차례 다그치기도 했다.

남성 주민들은 대체로 두 팔을 붙들린 채로 구호 정도를 외치며 경찰의 연행 과정에 저항하지 않으며 나왔지만, 한 주민은 부인이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가자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경찰은 논둑 쪽 바닥에 주민을 눕히고 팔을 꺾어 강제 연행해 갔다.

당진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여성주민 2명을 포함해 5명, 공무집행 혐의로 1명을 연행해 조사를 마치고 당일 오후 10시 가량 집으로 돌려 보내졌다.

황성렬 당진시송전선로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한전이 벼를 짓밟고 논에 올라설 때는 경찰이 아무 제재도 하지 않았으면서, 주민들이 울분에 차 행한 최소한의 저항에는 대규모 연행으로 맞섰다”면서 “도대체 경찰이 주민들의 편인지 한전의 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 측은 대규모 연행 사태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글, 사진 출처: 당진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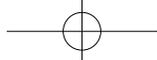
포클레인을 막아 선 주민들이 한전 측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눈독에 깔린 채 진행되는 우강 주민



공사 현장을 막아 섰던 여성 주민의 사지를 들고 나가는 경찰



당진시,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위... 5년 연속 1위 불명예 탈출

전년도 대비 두 단계 하락... 현대제철·당진화력 배출량 감소 영향
충남도는 여전히 6년 연속 배출량 최다 지역 오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당진시의 순위가 드디어 내려갔다.

한국환경공단이 6월 30일 홈페이지(<https://cleansys.or.kr>)를 통해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 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TMS를 부착한 당진의 사업장에서 나온 대기오염물질은 1만 6,238톤이었다. 이는 2019년 배출량 2만 8,929톤에 비해 1만 2,691톤이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 당진시는 5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지역의 불명예를 벗고, 세번째로 내려갔다. 대신 전남 광양시와 경북 포항시가 최다 배출 1, 2위 기초 시군으로 올라섰다.

당진의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대형 사업장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당진화력의 2020년 배출량은 7,135톤으로 2019년 9,136톤에서 2,001톤이 감소했다.

현대제철(그린과워발전소 포함) 역시 2019년 1만 8,461톤에서 2020년 8,134톤으로 1만 327톤 넘게 줄어들었다. 두 대형사업장에서 감축한 1만 2,328톤은 당진에서 줄어든 1만 2,691톤과 불과 362톤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특히 당진의 배출량 감소 노력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의 대폭 감소에 대해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은 “당진화력의 배출량 감소는 환경설비 개선도 했지만 무엇보다 계절관리제 등으로 가동률이 8% 이상 감소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현대제철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저감설비가 고장 나기 이전 수준에서 이전보다 좀 더 최신 설비가 들어온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라면서 “당진시의 대형사업장들은 앞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0년에도 3만 6,693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6년 연속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글 출처 : 당진신문

2020년 TMS사업장 연간배출량 시군구별 순위

순위	시군구	배출량(톤)
1	광양시	21,567
2	포항시	16,511
3	당진시	16,238
4	단양군	14,286
5	동해시	12,643
6	여수시	10,858
7	삼척시	9,845
8	울산 남구	9,094
9	보령시	7,732
10	인천 옹진군	7,512

2020년 TMS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

순위	사업장명	소재지	배출량(톤)
1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시	19,095
2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포항시	15,436
3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동해시	9,460
4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삼척시	7,730
5	현대제철(주)	당진시	7,720
6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인천 옹진군	7,512
7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당진시	7,135
8	한일시멘트(주)단양공장	단양군	6,876
9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태안군	6,661
10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단양군	6,394

2020년 TMS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 광역 순위

순위	지역	배출량(kg)	비율(%)
1	충청남도	36,693,427	17.89
2	강원도	36,285,306	17.69
3	전라남도	33,599,147	16.38
4	충청북도	20,367,221	9.93
5	경상북도	18,581,075	9.06
6	경상남도	13,218,929	6.45
7	울산광역시	13,030,715	6.35
8	경기도	12,353,543	6.02
9	인천광역시	11,196,658	5.46
10	전라북도	4,551,623	2.22
11	부산광역시	1,513,374	0.74
12	대구광역시	1,219,430	0.59
13	제주특별자치도	964,834	0.47
14	서울특별시	597,329	0.29
15	세종특별자치시	583,516	0.28
16	대전광역시	252,650	0.12
17	광주광역시	82,335	0.04
	전국	205,091,112	100

2020년 TMS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 당진 순위

순위	사업장명	배출량(kg)
1	현대제철(주)	7,719,700
2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7,135,493
3	지에스이피에스(주)	761,164
4	현대그린파워(주)	414,783
5	(주)석문에너지	149,254
6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26,431
7	충청환경에너지(주)	21,839
8	환영철강공업(주)	4,648
9	(주)SIMPAC 당진공장	3,600
10	한국유에스지보랄(주)	1,145
11	동부제철(주)	62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4000톤 증가했다

배달음식 주문 확대로 일회용품 쓰레기 급증
청주시·수원시 강력한 폐기물 감축 정책 눈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폐기물 양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및 포장 음식 소비량이 증가해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지역 생활폐기물 수거량은 지난 2019년 4만5000여 톤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4만9000여 톤으로 전년대비 4000톤, 약 1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일반폐기물 10.7% 증가

생활폐기물이란 사람들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일반쓰레기와 캔·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가전·가구 등의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모두 해당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량은 3만2293톤이었으나 2020년에는 3만5743톤으로 3450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재활용품은 346톤, 대형폐기물은 113톤, 음식물쓰레기는 435톤으로 총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4344톤이 늘었다. 특히 배달음식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재활용품은 전년대비 22.3%가, 대형폐기물은 30.9%가 증가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량

이 급증한 주원인으로 ‘코로나19’를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과 택배 배송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가전이나 가구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당진에 신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립되면서 이사하는 가정이 많아진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2년 새 연간처리비 40억 원 올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 자원순환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생활폐기물 총 반입량은 4만2899톤으로 처리비용은 115억 원이었다. 2019년에는 전년대비 반입량이 2000여 톤이 증가하면서 처리비는 125억 원으로 올랐고, 코로나19가 계속된 2020년에는 지난 2018년에 비해 6500여 톤이 늘어난 4만9400여 톤으로, 처리비용 역시 40억 원이나 증가했다.

조성준 당진시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비가 2019년부터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적용에 따라 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365일 쓰레기 수집 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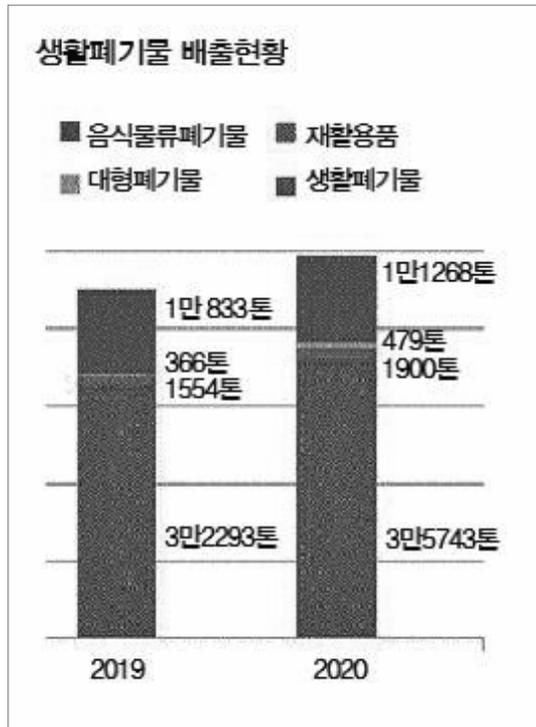
현재 당진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주)가곡환경이 맡아 수집, 운반하고 있다. (주)가곡환경에서는 직원 82명중 64명이 21개 팀으로 나뉘어 매일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주)가곡환경이 수거한 생활폐기물은 선별과정을 거쳐 소각되거나 재활용 업체에 매각된다.

이근주 (주)가곡환경 대표이사는 “쓰레기양이 증가하면서 수거 노동력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며 “지난 2일부터는 당진시에서 수집·운반 인원을 증원해줘 업무가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 규정만 잘 지켜준다면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고 모두 재활용되거나 쓰레기 수거량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당진시민들이 배출 규정을 지키면 더 깨끗한 당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출 실명제 등 감량 정책 강력 추진

한편 충북 청주시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청주시청 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배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종량제봉투에 부서명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것으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배출량이 많은 부서는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시청사 내 쓰레기 배출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사 내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크게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청주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감량률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며,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검사)을 통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마을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각 마을 통장과 주민들도 상습 쓰레기 투기 장소를 개선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소각용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하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안에 모든 마을에 재활용쓰레기 순환 거점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당진시대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송산·석문면 산폐장 시설견학

14일 공론화위원회 박태순 위원장과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먼저 송산 (주)제이엔텍 사업장을, 이어서 석문 (주)대성에코에너지센터 사업장을 방문했다.

공론화위원회 박태순 위원장은 “10월 초까지 공론화위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산폐장 침출수와 매립장 안전성 등에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산폐장에 대해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논의를 위해서는 위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직접 현장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설 견학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당진시에 전달하고, 당진시는 주민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3개월간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설견학에서 참석자들은 산폐장을 직접 둘러보며 업체로부터 폐기물 반입부터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송산 (주)제이엔텍에서는 마을 주민이 일부 참석

해 산폐장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설을 둘러보던 참석자들은 “폐기물 양보다 어느 것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다”, “침출수 감지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주)제이엔텍 관계자는 “연말에 환경부에서 어느 폐기물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침출수 유출 감시 시스템은 현재 반자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스템 매트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유출된 것을 감지되면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한편 공론화 위원회는 지난 8일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6월에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워크숍 결과 보고를 했으며, △운영 세칙 검토 △공론화 추진 계획 및 일정 확정 △공론화위원회 위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 추진 계획 및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확정했으며, 위원 확대 방안을 가결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를 결정하기로 했다. 출처: 당진시대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송산면과 석문면 산폐장 시설견학을 실시했다.

충남시민단체, 신서천화력 가동중단 촉구 기자회견

기후위기충남행동, 11일 충남도청 앞에서 캠페인

기후위기 충남행동(상임대표 황성렬)은 지난 7월 1일 오전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 석탄을 넘어서(전국 탈석탄 공동행동)와 함께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준공한 신서천화력발전소는 1조 61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18MW 규모로 지어졌으며 2017년까지 34년 동안 가동됐다 폐지된 서천화력발전소를 대신할 예정이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이용률 92%를 기준으로 연간 유연탄 323만 톤을 사용해 해마다 온실가스 약 755만 8000톤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는 1억 1400만 그루의 나무가 10년간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충남행동 황성렬 대표는 "현 정부 아래서 지어졌거나 새롭게 지어질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7기"라며 "우리 정부는 말로만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한국형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서천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결과적으로 2050탄소 중립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탄소예산도 초과되어 한국의 '기후파산'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의 34개 단체와 개인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기후위기충남행동은 앞으로도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출처: 노컷뉴스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지난 7월 1일 오전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 석탄을 넘어서와 함께 신서천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통계 밖 숨은 태양광 찾았다... 정부 “7월 피크시간 11% 기여”

베란다·지붕 등 설치 자가용 패널
집계 안되지만 전력수요 상당 충당
1MW 이하 태양광 합하면 15기가와트
신고리원전 4호기 용량의 3.5배 달해

아파트 베란다, 빌라 지붕 등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패널’은 전력거래소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지난달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에 자가용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수요의 11%에 달하는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추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력시장 외 태양광 발전량을 추계한 결과 7월 중 기온이 높은 실제 피크 시간(오후 2~3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총수요의 11.1%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7월 피크 시간대(주말 제외) 평균 전력수요는 9만1164메가와트(MW)였는데,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량이 1만 118메가와트를 충당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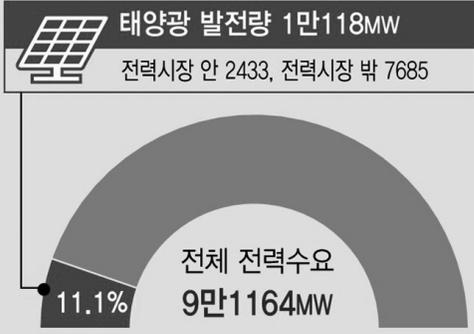
7월 기준 태양광 설비 총량은 총 20.3기가와트(GW, 1GW=1000MW)다. ①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5.1기가와트, ②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생산자가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에 직접 판매하는 11.5기가와트, 여기에 ③베란다 등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발전 3.7기가와트(추계치)를 합한 수치다. 그동안 전력거래소가 공개해온 전력수

급 통계에는 ②번과 ③번 발전설비용량(15.2기가와트)이 빠져 있었다. 15.2기가와트는 최신 원전인 신고리 4호기 발전량(1.4기가와트)의 11배 가까운 양이다. 계절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태양광 설비 용량의 약 35%가 실제 발전량인 점을 고려하면 5기가와트 정도가 실제 발전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역시 신고리 4호기 발전량의 3.5배에 이른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정용 태양광 등 숨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집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쪽 자료를 바탕으로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이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인 오후 4~5시에 1.7%에 불과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지난 2월 같은 취지의 기사를 썼다. 전력통계에 잡히지 않은 태양광 발전량이 여름철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오후 2~3시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상쇄함에 따라 여름철 전력 피크 시간이 오후 2~3시에서 오후 4~5시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전력 전문가 지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7월 오후 2~3시 태양광 평균 발전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주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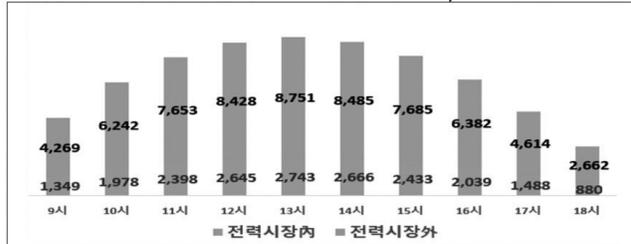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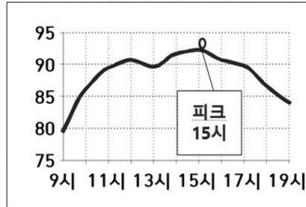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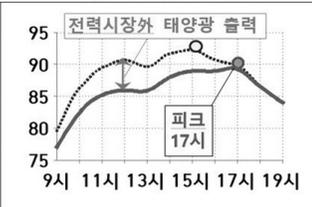
【태양광발전의 시간대별 평균 발전량 (단위: MW, 7월 기준(주말제외))】



【실제 총수요】



【전력시장 수요】



비판이 잇따랐다. 태양광 발전 증가에 따른 피크 시간대 이동은 미국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한 나라들에서 몇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앞으로 산업부는 자가용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 발전량 통계를 매일 산출해 공개하기로 했다. 일별 통계는 전력정보 앱을 통해 시간별 추계 통계를 다음날 공개하고, 월별 통계

는 전력통계월보에 공개한다.

태양광 발전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 7월 한달 피크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 비중(11.1%)은 흐리고 비가 왔던 7월5~7일에는 절반 이하인 5.3%로 떨어졌다. 산업부는 날씨에 따른 태양광 발전 변동성을 보완하고자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등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출처: 한겨레신문

제주2공항 환경평가서 반려... 국토부 "사유 검토할 것"

국토부, 재추진하려면 본안서 재작성해야 반대 여론 더 높고 정치권도 백지화 목소리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교통부로 되돌려 보내면서 사업에 큰 제동이 걸렸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보완 요청이 있었고, 지난 달 다시 보완서를 제출했는데 이마저 반려된 것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지역주민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백지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우선 반려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맹꽂이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습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국토부가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 재협의를 요청

해야 한다. 보완이 아닌 본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기에 쉬운 과정은 아니다.

제주도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 예정 발표부터 찬반 갈등이 극심했다.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 의견이, 2공항 부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찬성 의견이 앞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환경부와 국토부, 제주도가 서로 공을 넘긴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장은 이달 초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했으니 행정절차일 뿐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고, 환경부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제주도와 함께 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백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그간 백지화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의 여론, 제주도의 유무형 가치 훼손,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 등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사안이었다"며 "국토부는 재협의를 추진하지 말고, 건설계획 백지화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

[성명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가로림만과 한강하구를 포함 북한과 황해 전체 갯벌로 확대해야.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2019년에 중국의 옌청(Yancheng) 갯벌이 등재된 이후로 황해 갯벌로서는 두 번째 등재다.

그러나 아쉬움과 부족한 측면도 크다.

먼저,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문화재청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갯벌보호 노력들이 무시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서천, 고창, 신안, 벌교, 순천만)이 한국의 갯벌을 대표할 수는 없다. 반쪽짜리 세계자연유산인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4년 후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하여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 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사항인 1) 확대, 2) 통합관리, 3) 개발 억제, 4) 황해 협력과 의견을 같이 하며, 이번 등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쪽짜리 갯벌 세계자연유산은 국제 전문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국과 공조를 통해 황해 전체를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발췌)

2021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석탄씨를
구해줘

석탄 쓰다 걸리면
기후변화 하는거 안 배웠냐

12화



그때, 민간 발전사들은 석탄발전소 사업에 드는 투자비를 정부에 제안했어요. 정부가 오케이하면, 그 돈은 시민들 전기 요금으로 다 보전해주는 거거든요.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석탄씨를
구해줘

석탄 쓰다 걸리면 기후변화 하는거 안 배웠냐

12화



석탄발전 퇴출하자

김석탄이 알려주마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새로 만들면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동안 정부는 발전사들이 발전소를 짓는데 들었던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민간기업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6기를
지으면서 정부에 제시한 금액은 최근까지 인정해주던
다른 발전소의 투자비 수준의 두 배에 가까워. **그런데** **왜냐**
이렇게 무턱대고 높게 부른 투자비를 정부가 보상해주기로
하면 이게 다 시민들의 전기요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지.

신규 석탄, 정말 여러모로 민폐만 끼치는 사업이야.

환경운동연합
일촌맞이
프로젝트
withkem.or.kr

불타는
석탄씨를
살려주세요
본문 링크로 goo

10

환경운동연합

김석탄이 알려주마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새로 만들면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동안 정부는 발전사들이 발전소를 짓는데 들었던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민간기업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6기를
지으면서 정부에 제시한 금액은 최근까지 인정해주던
다른 발전소의 투자비 수준의 두 배에 가까워

이렇게 무턱대고 높게 부른 투자비를 정부가 보상해주기로
하면 이게 다 시민들의 전기요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지.

신규 석탄, 정말 여러모로 민폐만 끼치는 사업이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이동준 편집위원
당진시지속협 사무국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행스럽게도 헌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나라의 3.15 부정선거와 4.19, 군부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6월 민주항쟁, 소고기 파동과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정농단에 저항한 촛불 시위, 그리고 일터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셀 수 없이 많은 민주 대 반민주의 충돌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다.

법제에 근거하여 작동하고 있는 주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흠집을 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민주주의 파괴 행위’ 등의 표현을 토해냈다.

논평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개의 시나리오 중 2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에 이르는 이행경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탄소중립위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훨씬 중요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NDC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시나리오에서 누락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또, 만 15세 이상 국민 중에서 지역, 연령, 성별을 비례 할당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위원 500명으로 ‘탄소중립시민회의’(8월 7일 출범)를 구성하여 온라인 토론과 설문을 시나리오에 맞춰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시민참여가 아니라’ ‘시민동원’이라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상향을 제시하고 판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1조 1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는가는 오랜 시간 동안 일상의 현장 곳곳에서 늘 고민되어 왔다. 이 두 가지 가치 추구의 정점을 상향시키려면, 또 하나의 가치가 헌법 제1조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대한민국은 그냥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이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강령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추구”가 삽입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의 개념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은 지속가능성(지탱가능성, 유지가능성 Sustainability)의 실현이라는 더 큰 가치의 범주에서 고민하면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찾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을 꿈꾼다.

2021년 7월 결산보고서 (사업기간: 2021년 7월 1일 ~ 7월 31일)

수입액

[항명]	[목명]	수입집계	비고
이월금	6월 이월금	10,347,686	전월이월금
회원회비	개인회비	5,970,000	CMS, 자동이체, 지로, 특별회비
	[항집계]	5,970,000	
후원금	일반후원	547,360	개인 후원금
	재정사업	0	후원금
	[항집계]	547,360	
사업수입	회원사업	0	회원사업
	공모사업	0	공모사업
	기타사업	0	기타사업 수입
	[항집계]	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예금이자
	[항집계]	0	
월수입 총액	계	6,517,360	
수입 총액	계	16,865,046	전월이월금 포함

지출액

[항명]	[목명]	지출집계	비고
경상비	제세공과금	989,080	자동차보험료, 취득세, 전화료, 전기료, 신문대금,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75,900	관리비, 집기구입, 차량수리비, 실내등유, 커피구입 등
	자산취득비	0	비품, 자산구입
	복지후생비	196,000	업무추진비, 식대 등
	[항집계]	1,260,980	
인건비	급여	4,330,000	상근자 2인
	상여	1,082,500	
	퇴직적립금	360,840	
	사회보험료	450,470	
	[항집계]	6,223,810	
사업비	일반, 공모사업	150,000	공모사업, 석탄화력, 송전탑, 등 현안사업 준비
	조직, 회원사업	1,047,710	총회, 소식지 인쇄 및 발송, 운영위 및 편집위원회, 함길구독 외
	정책, 조사사업	0	교육 및 정책사업비
	연대사업비	362,050	중앙 분담금, 연대사업, 충남환경연합 분담금 등
	기획재정사업	0	후원의밤
	[항집계]	1,559,760	
기금조성비	장기발전기금	100,000	장기발전기금
	[항집계]	100,000	
지출총액	계	9,144,550	

2021년 7월 잔액 7,720,496



신서천화력 가동중단 촉구 기자회견

7월 1일 기후위기 충남행동과 마을주민
들 100여명이 신서천화력발전소 앞
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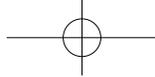
7월 운영위원회

7월 6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7월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린시티 당진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동행 취재

지난 7월 7일 그린시티에서 당진석탄
화력발전소 관련 해 동행 취재를 가졌
습니다.



충남에너지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토론회

7월 9일 충남도의회 주최로 충남에너지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황성렬 공동의장님과 김정진 사무국장님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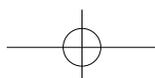
당진교육청과 환경 비전 선포식 및 업무 협약식 체결

7월 21일 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당진교육청과 환경비전 선포식과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충남 RE100 시민클럽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

7월 27일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RE100 시민클럽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인수 당진에너지센터장님과 김정진 사무국장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01 일반사업

- ❖ 8/05(목) 14:00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현장방문 - 합덕 석우리
16:00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5차 회의 - 당진시청
- ❖ 8/06(금) 10:00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온라인
- ❖ 8/09(월) 10:30 기후위기 충남행동 운영위 회의 - 온라인
15:00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전체회의 - 온라인
17:00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 ❖ 8/10(화) 11:00 에코생협 당진점 운영위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18:30 운영위원회 회의 - 온라인
- ❖ 8/11(수) 14:00 석문산단 업체 환경현안 관련 면담 - 제철산단 감시센터
- ❖ 8/12(목) 15:00 지혜의 숲 시민참여단 3차 워크숍 - 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
16:00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6차 회의 - 당진시청
- ❖ 8/18(수) 10:00 서산민항 관련 토론회 - 내포혁신플랫폼
16:0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총회 - 내포혁신플랫폼
- ❖ 8/19(목) 10:30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워크숍 - 미정
16:00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7차 회의 - 당진시청
- ❖ 8/20(금) 10:30 에너지의 날 기념 기후행동 - 당진구터미널 로터리
- ❖ 8/26(목) 11:00 금강유역환경회의 운영위 회의 - 충북 옥천살림
16:00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 ❖ 8/27(금) 14:00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 - 당진시공익활동지원센터
- ❖ 8/31(화) 14:00 환경연합 재생에너지협의회 - 온라인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8/31(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유현경(당진읍)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삼욱 강옥희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광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중
 김정희 김정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광호 김권기 김기권 김기동 김길자 김길찬 김남조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칠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범석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신규 김성훈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승택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옥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근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태기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립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성호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경자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연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영환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연 박종화 박창순 박대식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훈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방차옥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지현 선오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중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형식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신현환
 심승보 심재권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동책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자호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윤정 오의환 오일영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경라 유미화 유성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봉기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성남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인숙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선 이정옥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춘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남
 이현숙 이호경 이호선 이홍숙 인남교 인만교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옥출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중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환 정중섭 정지섭 정찬관 정치웅 조강호 조대연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조현수 주영권 주은자 지광선 차기능 차재석 차준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기승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묵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중원 최지용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옥 현민
 호상기 호용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명옥 홍성호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울건설산업(주)디에스(김현기)
 귀염둥이아띠어린이집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2021년 에너지의날 기념 '당진 기후 행동' 캠페인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에너지의날을 기념해 기후재앙에 직면한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의 각 시군 동시다발 기후행동을 추진합니다. 이날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도 에너지의날을 알리고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캠페인

- 날 짜 : 2021년 8월 20일(금)
- 장 소 : 당진화력발전소 앞, 당진구터미널 로터리
- 시 간 : 오전 09시 30분 : 당진화력발전소 앞
오전 10시 30분 : 당진구터미널 로터리
- 준비물 : 모자, 마스크, 개인물
- 문 의 :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 041-355-7661

SAVE EARTH! 🌱🌱🌱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 은 코로나19 급증으로 인해 8월은 쉽니다.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으로 발간되었습니다.